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 즉시  |             | 배포일시   |                        | 2025.12.4.(목) 16:30 |
|------|---------|-----|-------------|--------|------------------------|---------------------|
| 담당자  | 김주영 의원실 | 연락처 | 02-784-5260 | e-mail | gimpolovekjy@gmail.com |                     |

## 당정·안전보건공단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 민주당 산재예방TF, 중대재해 근절 총력!

### 4일(목)~5일(금) 산재VR체험 등 8개 부스 운영

김주영 단장 “산재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체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류현철 본부장 “일터 안전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 과제”

김현중 이사장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

오늘(4일)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체험형 4개·전시형 4개)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전시로는 ▲VR 핸드트레킹 기반 안전체험 ▲건강상담 및 과로사·트라우마 예방 안내 ▲365일 안전준수 이벤트 ▲안전게임 키오스크 온라인 프로모션 ▲노동안전 종합대책 소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픽토그램 안전표지(16개국어) ▲안전신기술공모전 수상작(배터리 파우치 등)이다.

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소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

VR체험의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상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건강 상담과 과로사·트라우마 관련 촬영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은 “‘현장이 변해야 노동자가 산다’는 원칙하에 반복되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투자 촉진,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체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전시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국회의 정책 방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TF 간사인 박해철 의원은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전시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생명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찾아가는 안전보건전시회’는 다양한 체험, 상담, 정책 소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실천력을 강화하고, 취약 직종 중심의 현장 지원을 확대하며, 범국민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효과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 사고현장 방문, 건설사 CEO 간담회, 당정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등을 통해 발굴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첨부파일> 1.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사진. 끝.

#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기간 | 2025.12.4(목) - 12.5(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

산업재해예방TF 김주영 박해철 김 윤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우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채현일

주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